

# 蓀谷 李達의 표현 기교

한성금\*

| 〈차례〉               |  |
|--------------------|--|
| 1. 서언              |  |
| 2. 대상 표현의 기교       |  |
| 2.1 절제된 묘사의 영상화    |  |
| 2.2 경물 의탁의 활물화     |  |
| 3. 언어 선택의 기교       |  |
| 3.1 울동감 시어의 적극적 활용 |  |
| 3.2 여운미 강조의 술어 생략  |  |
| 4. 결어              |  |

## 1. 서언

한국 한시사에서 고려 말 이래 선초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던 宋詩風은 중종과 명종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변화의 기류를 보이다가, 선조·광해 연간에 이르러 唐詩風이 시단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였다. 즉 선초의 수식과 기교를 중시하는 江西詩風은 사림파에 의해 비판되어 溫柔敦厚·沖澹蕭散·物外閑寂을 추구하는 내면화의 경향을 낳았으나 이러한 내면주의적 지향이 갖는 정서 표출의 제한은 필연적으로 다음 시기 서정성이

풍부한 당시풍의 출현을 가져왔다.<sup>1)</sup> 이것이 송시의 주지적이고 사변적인 시풍에 반하여 성정을 중시하는 낭만적인 16세기 당풍이다. 당풍을 추구했던 시인들은 외물을 낭만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감정을 절제 승화시켰으며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한 묘사로 독자에게 많은 여운을 남겼다. 따라서 선초의 杜詩나 唐代의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모의하는 수준에만 그쳤던 학당의 흐름은 조선 중기 穆陵盛世에 들어 양적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에 唐風을 學詩한 시인으로 朴淳·崔慶昌·白光勳·李達·李純仁 등을 들 수 있다. 박순은 목릉시단에 당시를 보급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은 최경창·백광훈·이달 세 사람은 당시풍 시를 창작하여 당대 문단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을 三唐詩人으로 통칭한다. 이들 중에 이달은 신분적인 결함 때문에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끝없는 방랑생활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천부적인 시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순은 學宋 일변도의 騷壇분위기를 학당으로 바꾸어놓은 선구자로 이달에게 學唐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sup>2)</sup>

이달은 詩才가 삼당시인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한다. 허봉은 당시를 배운 이로는 신라 이래로 그를 넘어설 자가 없다고까지 극찬하였다.<sup>3)</sup> 또한 조선중기 제일의 비평대가로 손꼽히는 허균은 그의 스승인 이달을 劉長卿에 비견할 만큼 높이 평가하였다.<sup>4)</sup> 이달의 시를 성당시의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學唐을 지향하는 다른 시인들의 시보다 뛰어났다는 근거는 시적 형상화의 탁월성에서 찾는다.<sup>5)</sup> 즉 수사적 표현기교를 통한

1)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30쪽.  
 2) 思菴相謂達曰 詩道當以唐爲正 子瞻雖豪放 已落第二義也 遂抽架上太白樂府歌 吟王孟近體以示之 達瞿然 知正法之在是 遂盡捐故學。(許筠, 『蓀谷山人傳』)  
 3) 仲兄亦言 李之詩 自新羅以來法唐者 無出其右。(許筠, 『惺叟詩話』)  
 4) 崔·白李三人詩 皆法正音 崔之清勁 白之枯淡 皆可貴重 然氣力不逮 稍失事厚 李則富豔 比二氏家類頗大 皆不出郊島之藩籬 崔白早世 李晚年文章大進 自成一家 斂其綺麗 歸於平實 仲氏亟稱曰 可與隨州比肩 亦不多讓。(許筠, 『鶴山樵談』)  
 5) 최경환, 「정경 결함양식과 이달 시의 당시풍적 성격」, 『蓀谷 李達 研究』, 원주, 2006, 165쪽.

\* 조선대학교

미적 형상화의 탁월함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이 16세기에 당풍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손곡 이달의 시적 표현 기교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의 미감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적 표현기교는 대상의 형상화와 언어의 미감적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음악적 울림을 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표현기법이 바로 唐風의 한 특징이다. 따라서 이달이 당풍의 시를 창작한 표현 방법상의 기교 가운데 대상을 표현하는 기교는 무엇이며 언어 선택은 어떻게 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그가 시를 형상화해 내는 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대상 표현의 기교

시인이 아름다운 시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은 모든 시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독자는 또 이러한 시적 장치를 통하여 미적인 감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풍의 전환기에 삼당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당풍을 이끌어간 이달의 시적 탁월성은 대상을 표현해 내는 기교와 절묘한 언어 선택의 기법에 있다. 물론 15~16세기 학당 시가 모의 수준에 그쳐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달은 당시를 수용하고 당시만이 가지는 독특한 표현 기교를 발전시켜 미학적 시세계를 개척하는데 공헌하였다. 唐詩의 미학은 인간이 본디 지니고 있는 감성을 아무런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냄과 동시에 시인의 능력과 결부되는 표현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달의 표현 기교 중에서 장면묘사를 통해 시각적인 영상미로 대상의 객관화를 표현하였던 기법과 자연물에 투영된 대상의 정감화로 시적 미감을 높인 표현들을 확인해 보겠다.

### 2.1 절제된 묘사의 영상화

영상화란, 시인이 작품의 전면에 나서서 독자들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 하려는 서술자로서의 태도를 버리고, 작품 속 인물의 심정을 객관적인 ‘境’만으로 제시하여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시는 시인의 독백으로써가 아니라, 대상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써 독자에게 전달된다. 즉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말하는 대신 대상 속에 응축시켜 표달해야 한다.<sup>6)</sup> 따라서 인물의 구체적인 정서는 알기 어렵고 시에 묘사된 풍경의 분위기만으로 독자는 추측하고 상상해야 한다.

陸時雍은 <詩鏡總論>에서 사람의 감정과 사물의 양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야말로 많은데 반드시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려 들면 곧 비속하게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도 오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sup>7)</sup>라고 하였다. 말하지 않고도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唐詩 미학의 한 가지 표현기법이다.

(가)

|        |                    |
|--------|--------------------|
| 去鳥遙空雲外 | 먼 허공 구름 밖을 새는 떠나가고 |
| 行人獨木橋邊 | 외나무 다릿가에 사람이 가네    |
| 茅簷隱映殘雪 | 처마에는 잔설이 은은히 비쳐 들고 |
| 門巷依徕冷烟 | 마을 골목에는 찬 연기 흐릿하구나 |

『蓀谷集』, 卷五, <無題>

(나)

|         |                    |
|---------|--------------------|
| 白犬前行黃犬隨 | 흰둥이 앞서 가고 누렁이 따라가는 |
| 野田草際塚纍纍 | 들밭 풀 가에는 무덤들 늘어섰네  |
| 老翁祭罷田間道 | 제사 마친 늙은이 밭도랑 길에서  |

6)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6, 30쪽.

7) 人情物態不可言者最多 必盡言之 則俚矣 知能言之爲佳 而不知不言之爲妙. (陸時雍, 『詩鏡總論』)

日暮醉歸扶小兒    날 저물자 취해 어린놈 부축으로 돌아가네  
『蓀谷集』, 卷六, <祭塚謠>

(가)의 시는 멀리 구름 밖에 새가 날아가고 외나무다리엔 나그네가 지나간다. 띠풀로 지붕을 이은 초라한 집엔 잔설이 남아 찬 기운이 가득하다. 마을 골목에서는 저녁을 짓는지 흐릿한 찬 연기가 피어난다. 한 폭의 동양화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회화적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아름답지만 곱고도 쓸쓸한 정경이다.

시인은 단지 객관적 경물만으로 장면을 묘사하여 제시하고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지만, 독자는 이미 쓸쓸함을 감지한다. 즉 외롭다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이 시를 읽으면 웬지 쓸쓸하다. 물론 외나무다리, 잔설, 찬 연기 등의 시어가 황량함을 더해준다.

賀裳은 『皕水軒詞筌』에서 “시는 함축을 귀히 여기고 淺直에서 병이 든다. 시인은 마땅히 다만 景象을 묘사할 뿐이나 정의가 절로 드러나야 한다.”<sup>8)</sup>고 하였다. 즉 시인의 주관이 객관적인 경물에 완전히 녹아들어 장면제시만으로도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시인은 보이는 여러 경물 가운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을 제시하지만 선택된 경물엔 이미 시인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제충요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면 묘사가 뛰어나다. 흰둥이와 누렁이가 올망졸망 따라가는 들길에 제사 마치고 취한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는 손자의 그림이 보인다. 풀밭 무덤가에서 제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취한 모습으로 손자의 부축을 받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다. 지극히 감정을 절제한 사실적인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자리엔 손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아들의 제사를 마치고 술로 마음을 달랠 노인의 애달픈 심정을 그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독자의 추측을 갖게 한다. 사실적인 묘사로 장면 장면이 손에 잡힐 듯이 그려진다. 아들

의 무덤에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심정, 할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쳐다보는 손자, 가슴 저미는 슬픈 영상이다. 시대의 참혹한 현실을 작가는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한 컷의 사실적인 장면 묘사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여운을 갖게 한다.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는 영상적인 이미지가 독자의 가슴에 더 오랫동안 각인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달의 시에서는 대상을 사실적인 필치로 단지 어떤 장면을 보여주지만 해도 무한한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시들이 많다. <拾穗謠>나 <刈麥謠> <撲棗謠> 등도 이달이 서 있는 현실 속에서 발견한 갈등과 절망을 그 나름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의 시는 이와 같이 경험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장면처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묘사 방법은 직설적이지 않고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意’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형상화시키는데 이것은 그가 겪어야 했던 현실 세계의 아픔이 절제된 성찰을 통하여 여과되고, 언어의 단련을 통해 시로 형상화된 것이라 하겠다.

## 2.2 경물 의탁의 활물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당풍의 한시는 정경의 융합을 피하는데, 경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묘사된 경물을 통해 시인의 정감을 투영하고 이를 통해 독자의 마음을 흥기시키는 것이다.<sup>9)</sup> 이달의 한시에서는 감정의 절제가 돋보이는데, 보통 경물에 의탁함으로써 자연물과 교감하고 대상을 정감화 시킨다. 따라서 대상들과 자신의 상상을 통해 함께 호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교류를 이룬다. 즉 이달의 시에서 자연물은 자

8) 정민, 앞의 책, 144쪽 재인용.

9)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450쪽.

신의 정을 실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다. 이때의 대상은 주로 자연적인 경물이 되는데, 시적 자아가 서정적 주체 또는 심미적 주체로서 자연을 바라볼 때 이념적 울림보다 정서적 경험을 더욱 우선하게 된다.<sup>10)</sup> 따라서 자연물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때로는 자연물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어 시인은 묘사를 통하여 흥취를 드러낸다.

자연물에 기탁해 시적 대상이 되는 인물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詩經의 興體라는 표현방법에서 사용되었는데, 시경의 흥체에 관해 宋代의 朱熹는 흥은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하여 읊고자 하는 말을 이끌어 내는 것이고 사물에 의탁함으로써 이 일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즉 자연물의 상태와 인물의 감정 또는 시적 인물의 처지에 관한 진술은 항상 병행해서 나타나는데 순서가 전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sup>11)</sup>

이처럼 경물을 통하여 화자의 정을 간접적으로 투영시킬 경우 시어를 경제적으로 절약할 뿐만 아니라, 의미의 내포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여운도 지니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인물의 감정과 자연물의 상태의 순으로 병치된 작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법에서는 정을 열었다가 닫아버림으로써 결구의 자연 사물의 상태에 독자가 직접 투

영하게 되어 여운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辭絕意續 효과, 즉 종영이 말한 글이 다했는데도 의미는 남음이 있다는 것은 嚴羽가 興趣의 시적 효과<sup>12)</sup>에 대해 말은 다했는데도 뜻은 무궁하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로서 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이달의 한시 중에서 오언 절구에서 정경의 결합양식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짧은 절구 속에 표현하려다보니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 자연물에 감정을 의탁하여 대상을 정감화 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손곡시집』에 실린 오언절구는 모두 54수인데, 서정시가 21수, 산수나 자연 경물을 시적 대상으로 한 산수시 또는 詠物詩가 10수, 그림을 시적 대상으로 한 題畫詩가 23수이다.

오언절구로 된 이달의 서정시가 당대인이나 후대인들에 의해 높이 평가받았다. 즉 오언절구의 서정시에 자연물을 통해 시적 대상이 되는 인물의 내적 감정을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이별의 슬픔과 旅愁가 이달의 오언절구로 된 서정시의 주된 정조로<sup>13)</sup> 된 까닭은 그의 삶에서 신분적 결합인데, 그의 모친이 당시 사회에서 천한 官妓였기 때문에 서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나 세상에 쓰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젊어서는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문사도 잘 지었지만, 겨우 韓吏學官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 하찮은 관직을 버리고 평생 방랑생활을 했다.<sup>14)</sup> 따라서 자신의 신분적 결합과 아픔에서 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10) 성기옥 외 4인 공저,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401쪽.

11) 자연물의 상태와 인물의 감정의 병치 구조를 보이는 흥체의 해석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徐復觀은 「釋詩的 比興」(『中國文學論集』, 學生書局, 民國 71년, 112면)의 논문에서 漢代의 傳注家들로부터 오늘날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상이한 학설들을 두 가지 논점으로 분류한 다음, 기왕의 語釋 위주의 훈고학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시의 본질에 근거함으로써 시경의 세 가지 표현방법인 賦·比·興을 구분하였다. 그는 먼저 賦가 시적 대상이 되는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比와 興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인물이 처음 느낀 감정을 이지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그 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을 比라고 하고, 이와는 달리 인물의 내적 감정을 직접 촉발시킨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을 興이라고 하였다. 比가 이지적인 사고에 의한 유추로 말미암는다는 점에서 '附理'라면, 興은 외적 자극에 의한 정서적 반응 즉 감정 촉발로 말미암는다는 점에서 '依情'이다. 比는 두 사물 사이의 비교되는 공통 기반 즉 유사성을 전제로 한다(최경환, 「정경 결합양식과 이달 시의 당시풍적 성격」, 『손곡 이달 연구』, 168쪽).

12) 엄우는 시의 본질을 성당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흥취'로 집약된다. 흥취는 시인이 외부 사물로부터 느낌을 받아 촉발되는 정서적 감흥 및 정취를 뜻한다. 이것을 다시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품을 읊은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운치라고 할 수 있다. 흥취에 의지하면 사상이나 언어가 생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상화된다(조윤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4, 72쪽).

13) 唐詩에서도 절구의 출현이 초·성당의 중간에 두드러지며, 형식에 있어서 율시보다 훨씬 더 깊은 함축미와 공교로움을 요구하는 詩體라는 것과 또한 李暉光이 『芝峯類說』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당시풍을 주로 추구한 시인들이 다른 시체보다 바로 이 절구에서 성공한 작품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朴守川, 『沖菴金淨의 詩文學』, 『韓國漢詩作家研究』 4, 太學社, 1999, 313쪽).

14) 蓀谷山人 李達 字益之 雙梅堂 李詹之後 基母賤 不能用於世 居于原州蓀谷 以自號

경에 의탁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에서의 함축과 여운을 통해 극도의 절제미를 창출하고 있다.

(가)

五月櫻桃熱 오월이라 앵두는 익어가고  
 千山蜀魄啼 온 산에 두견은 슬프게 운다  
 送君空有淚 그대를 보내노니 공연히 눈물나고  
 芳草又萋萋 방초만이 또다시 우거졌구나  
 『蓀谷集』, 卷五, <送人>

(나)

西陽下溪橋 서녘 해 시내 다리에 지고  
 落葉滿秋邐 낙엽은 가을 오솔길에 가득하다  
 蕭蕭客行孤 쓸쓸한 나그네 길 외로운데  
 馬渡寒溪影 찬 시내에 말 건너니 그림자 지네  
 『蓀谷集』, 卷五, <芳林驛>

(가)에서는 이별을 연상하게 하는 두견의 울음소리에 시인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의탁하여 표출하고 있는데 피를 토하듯 울어대는 두견의 마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아파하는 자신의 마음은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두견새와 교감하며 대상을 정감화 시킨다. 특히 절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물만 제시함으로써 그 감정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감정은 절제되고 여운은 확장된다.

(나)에서는 화자인 나그네의 쓸쓸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기구와 승구에 서는 지는 해가 시냇가 다리위에 비추고 오솔길에 가득 떨어진 낙엽이 제시된다. 평생을 떠돌이로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인은 지는 해나

낙엽 지는 오솔길에서 자신과 동질의 교감을 가진다. 이것은 시적 화자가 홀로 나그네 길을 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다. 즉 그러한 자연물의 상태와 시적 화자의 처지는 그것들로 인해 촉발되는 감정의 유사성을 갖는다. 특히 절구의 찬 시내를 건너는 말의 처지와 유숙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심정은 정서적으로 정감이 교류하면서 시적 화자의 내면 상태를 말의 처지와 빗대어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경물의 대상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어 함께 호흡하는 대상의 정서적 교류는 제화사에서 더 두드러진다.

陰崖古驛存 그늘진 언덕에 옛 역이 있어  
 行人夜投宿 나그네는 밤들자 투숙을 하네  
 犬吠白雲中 흰 구름 속에서 개 짖는 소리  
 童子下山谷 동자는 산골짜기 내려가누나  
 『蓀谷集』, 卷五, <題畫帖>

위의 시는 이달의 제화시 중의 하나이다. 멀리 언덕 아래에 오래된 역이 있다. 이 역은 오래되고 낡은 집이지만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시인은 그림에서 본 언덕 아래의 오래된 역에서 나그네의 안식처로서 반가움과 편안함으로 정서적 교감을 느낀다. 특히 전구의 개 짖는 소리까지 상상하고 포착하여 고향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제화시는 화면상의 이미지를 보고 시인이 자신의 언어로 다시 재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화면상의 이미지에 시인 자신의 정을 실어 엮어내는 작업은 시인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상상력과 정감화 작업에 의하여 동일한 화면상의 이미지를 시적 재료로 사용하였을 지라도 시인에 따라 표출된 시어는 개성을 갖게 된다.

이달의 제화시 31수 가운데 이 중 19수가 오연절구이고, 8수가 칠언절구이다. 시의 외형적인 형태는 묘사 방법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也. 爲韓吏學官有不合 棄去之 平生無着身地 琉璃乞食於四方 人多賤之. (許筠, 『蓀谷山人傳』)

데, 이달의 제화시 작품들은 대부분 간결한 묘사를 통해 화면상의 이미지에 대한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을 생동감 있게 환기시키는 시라고 단언해도 무방하다.<sup>15)</sup> 따라서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은 바로 그림을 통해 보이는 경물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정감을 투영하여 시적 언어로 산출해 내는 것이다.

이달은 대상 하나 하나의 회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살아 숨 쉬는 대상으로 활물화 시키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들 속의 풍경이 시인 자신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그가 대상으로 택한 화면상에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림 속의 인물과 정서를 나누는 정감화 작업으로 활물화 시킨다.

采樵山澗中    산골짜에서 땀감을 해오다가  
 息肩山邊石    산턱 바윗가에 어깨를 풀고 쉬네  
 遙遙望家山    멀리 마을 산을 바라보다가  
 不知山日夕    서산에 해 지는 줄 알지 못했네  
 『蘇谷集』, 卷五, <題畫>

이 시에 제시된 그림은 나무꾼이 석양 무렵 산자락 바위 끝에 앉아서 돌아갈 집을 응시하는 그림일 것이다. 시인은 자연에 동화되어 앉아있는 나무꾼의 모습에서 시인 가까이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이 시에서는 산골짜, 땀감, 바윗가 등 자연적 요소에 자연인인 나무꾼까지 시인의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다. 해가 지는 산골짜는 나무꾼의 생각의 장소이고 쉼터이다. 시인은 이미 나무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골짜와 나무꾼은 불가분의 관계다.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나무꾼은 산속에 해가 석양으로 넘어간 줄도 모르고 앉아 있다. 더욱이 전구에서는 멀리 마을 산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확인할 수는

15) 최경환, 「이달의 제화시와 시적 진술의 양상」, 『손곡 이달 연구』, 원주, 2006, 243쪽.

없지만 시인은 나무꾼과의 정감을 나눔으로서 고향을 바라본다고 상상하고 있다.

특히 결구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속의 해가 지는 줄도 모른다고 했는데 단지 석양에 홀로 앉아있는 나무꾼과 교감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러한 표현은 묘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인은 이미 그림 속의 인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감화 하여 시인과 나무꾼이 함께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대상과 교감의 길을 터놓고 있다. 이러한 기법으로 정지된 시간과 공간을 살아있는 자연으로 재생시키면서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3. 언어 선택의 기교

唐詩에서 시어의 언어학적 특징이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한자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문법적 속성에 의해 그것이 시어로 쓰일 때 자유롭게 변용되어 다양한 감각과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법적인 측면, 그리고 시어 자체가 지니는 물리적인 소리를 통한 음운감과 또한 이 물리적인 소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인 소리로서의 측면을 들 수 있다.<sup>16)</sup> 그렇기에 당시는 ‘의미가 아닌 소리로서 읽는다’는 말을 할 만큼 소리 표현에 집중하였다. 양경우가 당송시를 변별하면서 율격과 음향에 달려 있다<sup>17)</sup>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시어가 갖는 음악

16) 이전부터 이 시의 언어학적 특징에 관한 문제는 늘 논의되어 왔으나 여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술한 글들은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국외에서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高友工, 梅祖麟 같은 중국계 학자들의 논문과 黃永武의 『中國詩學』에서 시에서의 다양한 언어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송준호가 「우리 한시의 이해를 위한 省察과 하나의 詩論」(『韓國漢文學研究』特輯號, 韓國漢文學會, 1996)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략하게 다룬 이래로, 이에 시사를 받아 이종목이 「한시작법의 언어학적 접근 시론」(『문학과 언어학의 만남』, 신구문화사, 1996) 논문을 내었다(全松烈, 「朝鮮朝 初期學唐의 變貌 樣相 研究」, 延世大 博士學位 論文, 2000, 25쪽).

성을 강조한 말로 시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음악성과 문법적 구조에서 느껴지는 음악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3.1 울동감 시어의 적극적 활용

삼당시인은 당시를 배워 이 땅에 당풍의 한시를 정착시킨 공로가 크다. 이때 이들 한시의 예술적 표현미와 함께 당풍을 확인케 하는 한 요소가 소리 문제다. 당풍을 지향하는 한시는 ‘詩中有畫’라 하여 작품의 의경이 회화를 지향하지만, 이처럼 작품의 내부에 울림이 있어 ‘詩中有聲’을 강조하기도 한다. 작품의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치 영화의 배경 음악처럼 작품의 후면에서 흥감을 불러일으킨다. 소리의 울림이 있기에, 작품은 20자에 끝이 나지만 여운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18)</sup> 특히 허균은 이달이 “구와 글자를 단련하고 소리와 운율을 연마 했다.”<sup>19)</sup>라고 하여 소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달 시에서는 다양하게 소리를 표현한 시들이 보인다. 특히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하여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시적 표현미를 표출하였다.

소리에서 음성 상징어는 대개 3가지로 나뉜다. 흔히 의성어로 불리는 단순한 음성 상징어, 행동을 모방하는 의태어, 소리는 유사하지 않지만 무엇을 암시하는 음성 상징어가 있다.<sup>20)</sup> 이달의 시에는 이러한 음성상징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는疊字가 유난히 많이 쓰였는데, 이는 음향상 여러 가지 작용을 하여 리듬감과 시의 미감과 飄逸性을 조장하고 시의 생동감과 입체감까지 구사할 수 있었다.<sup>21)</sup> 따라서 이달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소리를 원용하여 표출함으로써 독자에게 무한한 상상과 미감을 갖게 한다.

17) 唐宋之辨 在於律格音響間。(梁慶遇, 『霽湖詩話』)

18) 이종목, 앞의 책, 160쪽.

19) 句鍛字鍊 聲揣律摩。(許筠, 『蓀谷山人傳』, 『惺所覆瓿藁』 文部 5)

20) 이승복, 『우리 시의 운율체계와 기능』, 보고사, 1995 참고.

21) 柳晨俊, 『韓國漢詩와 唐詩의 比較』, 푸른사상, 2002, 328쪽.

(가)

鶴上紫煙衣      학 타고 자연의 입고  
飄飄高仙子      표표히 떠나는 고선자  
去入雲冥冥      구름 속으로 들어가 감감하더니  
天風吹不已      하늘 바람만 끝없이 불어오는구나

『蓀谷集』, 卷五, <題金醉眠山水障子面 3>

(나)

古澗水泠泠      이끼 낀 개울엔 물이 졸졸 흐르고  
山風松子落      산 바람에 솔방울이 떨어진다  
中有隱世人      그 가운데 운둔하는 사람 있어  
援琴坐苔石      거문고 끌어안고 이끼 낀 돌 위에 앉았다.

『蓀谷集』, 卷五, <題金醉眠山水障子面 4>

(가)와 (나)는 陶潛의 『桃花源記』를 그린 그림을 보고 손곡 이달이 쓴 제화시이다. (가)의 시는 승구에서 ‘飄飄’라는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표는 의성어이기도 하고 의태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선 의 옷자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생동감과 입체감을 형성한다. 또한 전구의 ‘冥冥’은 紫煙衣를 입은 高仙자가 떠나 멀리 구름 속으로 숨어버림을 연상하게 하는 첩자이다.

(나)에서는 개울물 졸졸(泠泠) 흐르고 바람에 솔방울이 떨어진다. 비록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그 소리까지 감지되어진다. 이 시에서는 령령(泠泠, 졸졸)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자연물을 청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은 자연음을 포착하여 동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거문고를 끌어안고 생각에 잠긴 정적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백광훈의 시가 시각적이라면 이달의 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그림의 배경이 되는 동적인 자연물과 그림 속의 인물이 취하고 있는 태도의 정적인 관계가 어우러져 형상화됨으로

써 훨씬 리듬감 있고 입체적이다.

이러한 첩자를 활용한 예는 이달 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간단하게 오언 절구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蕭蕭林葉飛 <詠畫 1 2구>
- 蕭蕭客行孤 <芳林驛 3구>
- 芳草又萋萋 <送人 4구>
- 日日望夫君 <別意 4구>
- 曠野沈沈樹 <上柳西垞 2구 >
- 翁婦相欣欣 <題畫 1, 1구>
- 遙遙望家山 <題畫 2, 3구>
- 相逢何草草 <逢金爾玉別 3구>
- 蒼蒼谷口山 <楓岳晴雲 1구>

이달은 疊字의 활용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음과 중국음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음운의 소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울림소리인 유성음의 사용은 시적여운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 桐花夜煙落 오동 꽃잎은 밤 안개처럼 떨어지고
- 海水春雲空 바닷가 나무 위의 봄 구름은 텅 비어있다
- 芳草一盃別 향기로운 풀밭에서 한 잔 술로 작별하지만
- 相逢京洛中 서울에서 다시 만나보겠지

『蓀谷集』, 卷五, <別李禮長>

(라)

- 東峯雲氣沈翠微 동산의 구름에 파란 산자락이 잠기어 있는데
- 澗道竹枝尋芳菲 산골 물 따라 죽장으로 고운 봄 풀 찾아 나선 길

- 深林幾處早花發 깊은 수풀 몇몇 곳에 이른 꽃이 피었는지
  - 時有山蜂來撲衣 때때로 산벌이 따라와 옷에 달라붙는구나
- 『蓀谷集』, 卷六, <靈谷尋春>

(다)의 시는 시인이 이에장이라는 인물과 헤어지면서 지은 송별시로 오동 꽃이 떨어지는 밤에 벗과 한 잔 술을 나누며 이별하는 장면을 영상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별하는 시에서의 화자의 아쉬운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자연물과 음향의 조화로 쓸쓸함을 촉발시킨다.

이 시에서는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음향적인 여운을 불러일으키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절구의 ‘상봉경락중’은 받침이 대부분 /ㅇ/의 유성음을 써서 독자로 하여금 청아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략]은 측성으로 둔탁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오동꽃 떨어지는 봄밤에 이별하는 마음을 청아함과 둔탁함이 어울려 이별의 슬픈 미감을 자아낸다. 따라서 시인은 화자의 이별의식을 음향적인 여운과 리듬감을 배합하여 독자로 하여금 애상감을 절절하게 자아내게 한다.

(라)에서는 죽장을 짚고 봄을 찾아 나선 시인의 옷에 산벌이 따라온 풍경을 묘사하여 봄이 시인의 시야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와 있음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시 역시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시냇물 소리와 산벌의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포착하여 고아한 미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종목은 작품에서 포착된 소리를 내부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sup>22)</sup> 이달 시에서는 도처에 이 소리를 여운으로 남겨 미감을 느끼게 하고 고아미를 창출한다.<sup>23)</sup> 이달 시의 고아는 시어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첩자를 잘 활용하면 오묘하고 형언키 어려운 의취를 표출할 수 있

22) 이종목, 앞의 책, 158쪽.

23) <夜坐贈許端甫>에서 “궁루소리 다시금 그윽하네(宮漏更沈沈)”로 그윽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상상하게 한다. 또 <題金悅卿寫眞帖>에서 절구의 “천추의 쇠북 범패 소리가 나리(千秋鐘梵音)” 역시 상상의 범패 소리를 반영하고 여운이 남도록 한다.



다는 점에서 첩어의 선택이 시의 고아함과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달의 시에서 쓰인 시어의 특징은 첩자를 활용함으로써 강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향의 조화로 흥감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이달의 시는 소리를 시적 소재로 사용하여 그의 작품에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삼당시인의 작품에도 드러나고 있는 당시풍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이달은 더욱 섬세하게 포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 3.2 여운미 강조의 술어 생략

당시에서의 문법적인 특징은 ‘명사나 명사구의 多用’과 ‘품사의 통용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삼당시인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드러난다. 즉 술어가 생략되어 명사만으로 배치될 때 주변 경물이 정적으로 제시되고 독자는 남은 여백을 채워가는 포괄적 해석을 시도하게 된다.

일찍이 錢鍾書는 『談藝錄』에서 “唐人은 시에서 명사를 즐겨 썼고, 宋人은 동사를 즐겨 썼다(唐人詩好用名詞, 宋人詩好用動詞)”라고 말할 만큼 이 명사의 다용은 당시에서의 중요한 문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이것은 동사는 설명으로써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명사는 함축성을 강조하고 무척 절제된 모습의 긴 상상력을 여운으로 남긴다.

|         |                       |
|---------|-----------------------|
| 近水疎籬紅杏花 | 물 가까이 성긴 울타리에 붉은 살구꽃  |
| 掩門垂柳兩三家 | 늘어진 버들 아래 문이 닫힌 두세 집  |
| 溪橋處處連芳草 | 시내에 놓인 다리에는 봄풀이 이어졌는데 |
| 山路無人日自斜 | 산길에는 아무도 없이 해만 절로 기운다 |

『蓀谷集』, 卷六, <山行關外作>

이 시는 1구와 2구가 술어가 생략된 채 명사로만 배열하였다. 이러한 명사의 활용은 동사를 배치 할 때보다 훨씬 시적 감정을 절제하고 동적인 느낌보다는 정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술어사용을 절제하여 대상을 정적으로 시각화하고 회화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백과 상통하는 생략이나 함의 등으로 상상의 폭을 넓게 한다. 삼당시인의 작품들에는 술어를 쓰지 않고 명사만 병렬한 경우<sup>26)</sup>가 많은데 특히 오언절구에서의 행간과 행간의 비약과 술어 사용의 소극성으로 의미를 다 드러내지 않고 시각화함으로써 포괄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이 시는 집 가까이에 냇물이 흐르고 울타리엔 진분홍빛 살구꽃이 한창이다. 대문이 닫혀있는 두어 채 집 사이에 늘어진 버들과 봄풀이 어우러진 시내의 다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산길 등 동양화의 그림처럼 회화적이고 정적이다. 술어가 없이 병렬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지만 독자는 더 많은 것을 읽고 느낀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1구와 2구에서 특징적인 사물을 술어 없이 병치하여 봄을 맞은 산촌의 모습을 남김없이 그려내고 있다.

|       |                  |
|-------|------------------|
| 一行兩行雁 | 한 줄 두 줄로 나는 기러기  |
| 萬點千點山 | 만 점 천 점으로 산은 놓였네 |
| 三江七澤外 | 삼강, 칠택 밖         |
| 洞庭瀟湘間 | 동정과 소상 사이        |

『蓀谷集』, 卷五, <題金養松畫帖>

26) 이와 같이 술어를 생략하고 명사만 배치한 경우는 삼당과 시에서 자주 보인다. 백광훈의 <弘慶寺>를 보면 기구와 승구는 기구의 수식어인 殘을 제외하면 모두가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최대한의 언어적인 압축을 요구하는 오언 절구이기에 더욱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토록 명사만을 써서 철저하게 이미지화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즉, 주초와 전조사 잔비와 학사문의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개의 장면들은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병치되어 있을 뿐 시적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는 각각의 정경들이 주는 이미지로만 시적 상황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적 효과는 독자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도록 한다. 또한 이 시는 생략법이 가져다주는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4) 유성준, 앞의 책, 328쪽.

25) 전승열, 앞의 논문, 25쪽 재인용.

이 시에서도 1·2구에서 우선 묘사할 대상을 설명하지 않고 명사형 단어만을 배치하고 있다. 독자들은 제시된 시어를 통해 상상하면서 해석을 시도한다. 3구와 4구도 마찬가지다. 역시 명사형만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포괄적 해석을 요구한다.

술어가 생략될 때 여러 경물은 정적으로 제시되어 주변의 경물이 남김없이 묘사된다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것은 경물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때 특정한 명사나 부사가 술어로 전용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명사의 전성은 사물의 모습을略의 기법으로 처리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넓게 하는 효과가 있게 한다.<sup>27)</sup> 이와 같이 술어의 생략은 대상을 정적이면서도 시각적인 심상으로 구체화시킨다. 움직임이 없기에 묘사된 경물의 모습을 천천히 상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독자의 흥감이 일게 된다.

설명을 배제하고 경물의 묘사에 치중한 것이 唐詩의 가장 큰 특징인데, 명사형을 다용한 언어선택으로 감정의 여백을 독자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삼당파 시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슬픔과 비애, 낙화 이별 등의 정서를 차원 높게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으로 발전시킨다.

#### 4. 결어

조선중기, 16, 17세기 학당풍이 이루어낸 문학적 성과는 시를 최상승의 언어예술로 끌어올린 점이다. 그 중에서 특히 삼당시인의 주체적 역할을 했던 손곡 이달은 문풍의 전환기에 활동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시의 전면에 내세워 唐詩의 시적 기교들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특히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시의 표현 기교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닌 시의 구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가면서 독자에게 미감을 획득하게 한 점이다. 한마디로 향촌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달의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경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민요들을 채집하여 한시의 형태로 한역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이달의 경우 시인의 개인적 경험을 악부시의 가락으로 체득하여 담아내고 이를 표현 기교를 통해 아름답게 승화시킨 점이다.

따라서 이달시의 시적 형상화 방식은 대상을 표현하는 기교적 측면에서 장면묘사에 중점을 둔 객관적 묘사로 독자로 하여금 애상에 잠기게 하고 그림으로 떠올리게 하여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기게 한다. 즉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여 감정을 절제하기 때문에 자연물에 자아의 정서를 투영하여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대상들과 함께 호흡한다. 또한 이달은 학당의 성과를 계승하고 공유하였지만 학당 시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원인은 결국 그의 언어에 대한 뛰어난 감각, 곧 언어를 조작하는 능력이 그 이전의 어떤 시인보다도 탁월했던 데에 있었다. 특히 소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으며, 술어를 생략하여 명사나 명사구만의 나열로 해석의 폭을 넓혔다. 또한 통사구조의 애매성을 조작하여 의미의 풍요성은 물론 언어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언어의 미감을 창출한 점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이달의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그 기저에 당시의 수용이 있었으며, 당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27) 이종묵, 앞의 책, 167쪽.

## 참고문헌

### 1. 자료

- 李 達, 『孫谷集』, 국립중앙도서관소장.  
金萬重, 『西浦漫筆』  
許 筠, 『惺叟詩話』  
\_\_\_\_\_, 『惺所覆韻藁』  
\_\_\_\_\_, 『鶴山樵談』

### 2. 저서

-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柳晟俊, 『韓國漢詩와 唐詩의 比較』, 푸른사상, 2002.  
\_\_\_\_\_, 『中國 詩學의 理解』, 신아사, 2005.  
\_\_\_\_\_, 『중당시와 만당시 연구』, 푸른사상, 2005.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이승복, 『우리 시의 운율체계와 기능』, 보고사, 1995.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_\_\_\_\_, 『한시미학산책』, 숲, 1996.  
조용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4.  
崔慶昌외, 趙達淳 譯, 『三唐詩』, 태학사, 1999.  
許敬震, 『孫谷 李達 研究』, 원주, 2006.

### 3. 논문

- 金永國, 「玉峯 白光勳의 詩 世界」, 圓光大 博士學位論文, 1993.  
權善周, 「孫谷 李達 詩 研究」, 誠信女大 碩士學位論文, 1986.  
박병익, 「16세기 삼당시인의 당시풍 연구」, 목포대 박사학위논문, 2005.  
兪賢淑, 「孫谷 李達의 詩研究」, 東國大 碩士學位論文, 1987.

- 安炳鶴, 「三唐派 詩世界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88.  
全松烈, 「朝鮮朝 初期學唐의 變貌 樣相 研究」,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2000.  
최숙인, 「조선 후기 문학에 나타난 회화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 Abstract

### A Study on Songok Lee Dal's Representative Techniques

Han, Seong-geum

Songok Lee Dal, a poet of Samdangpa in the middle of Joseon Period, was famous for superior representational method of poetry.

He was highly admired by many people including Huh Gyun, one of his students, because of his superiority in describing poetry. The reason why his poetry was admired is that his poetry is outstanding in configuration of poetry.

Mr. Lee Dal's outstanding method to express poetry lies in techniques and choice of words. He used visual description of images to objectively express objects. The poet attempted to present what the characters in poetry wanted to express only with objective scenes instead of attitude as a narrator.

And he inspired objects through projection of emotion into natural things. Thus, when emotion of speakers is indirectly revealed through natural features, meaning implied in poetry is expanded and a trailing note of imagination is presented.

His another technique of poetry is excellent word choice. He used a lots of sound symbolic words to represent rhythm. His poetry used various sounds to reinforce poetry to which his emotion was projected to have a subtle effect. And he omitted predicates for static description of natural features, which inspired readers to have imagination.

As above, Songok controlled voice and emotion of poetic

speakers as much as possible to give inspiration and strong tail notes to readers. As he has excellent linguistic sense, that is, ability to manipulate languages, he is considered to have led the poetry style of Dang Dynasty in the middle of Joseon period.

Key words : beauty of images, description of scenes, emotional representation of objects, deposition, configuration, sound symbolic words, reduplication, omission of predicate, imagination and trailing note, eruption and control of emotion